

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, 안전결의대회 개최

✎ 봉채영 기자 | ⓒ 승인 2025.03.11 10:58

안전·청렴 특별교육 실시



10일 사업단 회의실에서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31명이 참석하여 『안전결의대회(청렴이행각서 교환) 및 안전·청렴 특별교육』을 실시했다. 사진=영산강사업단 제공

[전남=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안전결의대회(청렴이행각서 교환) 개최 및 안전·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지난 10일 사업단 회의실에서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31명이 참석하여 『안전결의대회(청렴이행각서 교환) 및 안전·청렴 특별교육』을 실시했다고 11일 전했다.

이날 안전·청렴 특별교육에서는 안전관리 3대 분야(중점관리)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중대재해발생 사례 교육으로 사업단 전 직원, 현장관계자들의 재해예방 경각심을 높였고, '25년도 재해율 0% 달성을 약속했다.

또한,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선서했다.

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청렴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고, 각 건설현장에서의 부패예방과 고충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박형수 단장은 “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”을 강조하며, “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에 공사와 현장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”을 당부했다.



봉채영 기자 bcy2020@naver.com